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1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29일 (음력 11월 12일) 금요일

민주당과 국민의당, 광주시장 자리 한판승부

[2018 지방선거 · 광주]

민주당 “운동장 기울었다” 8명 물밑 경선 레이스 국민의당, 당내 분란으로 어수선... 출마자 잠잠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여당' 국민의당이 다툼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물리적 시간이 많이 남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선거 초반 분위기는 일단 양당 안팎 분위기 탓에 조금은 희비가 갈리는 모양새다.

먼저 민주당은 “운동장이 기울었다”며 8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개개전투에 나선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 8석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통합 갈등으로 링에 오를 ‘경선주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현재 광주시장 출마 예상자는 민주당이 8명, 국민의당이 3명에 이른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민중당이 후보자를 내고 무소속이 가세할 경우 입지자는 15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

오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윤정현 시장을 비롯, 3선의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항자 최고위원, 이병훈 동남을위원장,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최영호 남구정장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자천타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선 강 전 의원과 민 정장이 각각 지난 달 26일과 이달 8일 출판기념회를, 최 정장이 지난 10일 지지모임 성격의 포럼 출범식을 갖고 세(勢)를 과시하며 본격 행보에 나섰고 유력 정치인과 대중적 스타를 앞세워 새로운 지지층 흡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병훈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지난 13일 후보군 중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양 최고위원도 씩크탱크 출범에 이어 1월 하순 출범식을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가나다라 순.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윤 시장도 내년 1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당내 선출직 평가직업에서도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변수인 이 부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 중후반의 선호도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데다 조지도 본격 가동되

고 있어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형석 민주당 시장위원도 당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선 언제든지 등판할 채비다.

국민의당 중진 3인방인 박주선·김동철·장병환 의원은 원내·당내 중책을 맡고 있는데다 통합과 분당 등 당 안팎의 상황이 어수선했는지 아직까지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당 중진들은 해를 넘겨 1월에나 교통정리를 통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며 “당원 모집이나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출마가 확실시되는 주자는 없는 상태”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지금의 통합론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면서 특정 후보가 용립된다면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선 연대설과 조건부 불출마설이 나온다. 일부 후보 사이에 지지율 1위에게 힘을 실어주는 3차 또는 양자 연대설이 나돌고 ‘A후보가 나오면 B후보가 출마를 잡는다’는 식의 소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최남규 기자



이전투구

최근 당무 감사에서 기증미달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어해 한국당 최고위원은 28일 홍준표 대표를 향해 “엄마를 내버리고 집을 들어 집안만 들으며 혼을 놓은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다. 큰딸로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조강지처를 버리고 집이 주인행세를 하는 한국당에 대한 보수우파의 지지자 시선은 싸늘하나 대표의 그것조차 느끼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류 최고위원은 “홍 대표는 당을 배신했던 바른정당 (현당 의원들)에 당 주요 보직을 모두 맡겼다며 ‘이들은 본인들을 살렸다고 탄핵에 동조하고 우리 당에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시스



류어해



서청원



홍준표

중학생들이 위안부 협상 무효 촉구 ‘소녀상 건립’

산정중 학생회 작은 소녀상 건립... “정부 굴욕적 협상에 분노”



광주 산정중학교 학생회가 28일 학교 현관 입구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작은 소녀상’을 건립했다

광주 산정중학교 학생들이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를 촉구하며 ‘작은 소녀상’을 건립했다.

산정중학교 학생회는 28일 오전 학교 건물 현관에서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작은 소녀상 건립 제막식을 가졌다.

광주지역 중학교에서 소녀상을 학생들이 건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녀상은 높이 30cm 크기로 현관 입구에 세워졌다.

학생회는 2015년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 소녀상 건립을 사업으로 확정했다.

학생회 간부들은 점심시간에 소녀상 건립 모금을 진행하고 학교 축제 수익금도 보냈다. 총 모금액은 82만4450원이다.

임행백 기자

신정 연휴로 다음호 3일자 발행합니다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